

# 코로나19가 막아도... KIA 시계는 돌아간다



미국 플로리다 스프링캠프를 마치고 귀국한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캐치볼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맷 윌리엄스 감독

### 귀국 후 챔스필드서 첫 훈련...선수단·취재진, 동선 따르며 '사회적 거리' 투수·야수조 실전 재개 위해 구슬땀...선수들 본격 생존 싸움 시작 윌리엄스 감독, 20·21일 자체 홍백전...정에 멤버 옥석 가리기 돌입

“호랑이 군단”이 안방에서 봄을 기다린다. KIA 타이거즈가 1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귀국 후 첫 훈련을 진행했다. 시범경기 취소로 캠프 일정을 미뤄 16일 귀국한 선수들은 하루 휴식 뒤 다시 스피이크 끈을 조여댔다. 화창한 봄 날씨, 예전과 다를 것 없는 그라운드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선수단의 동선이 분리된 가운데 선수들은 체온 검사를 한 뒤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취재진도 체온 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한 뒤 정해진 동선에 따라 이동해야 했다. 취재 구역도 1루 덕아웃으

로 제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훈련이 전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라운드 열기는 뜨거웠다. 각각 허리통증과 흉통으로 중도 귀국한 이창진과 백미카엘을 제외하고, 캠프를 완주한 55명이 그대로 챔피언스필드로 이동해 마지막 엔트리 경쟁을 시작했다. 홍건희 등은 불펜 피칭을 하며 실전 재개에 대비했고, 팔꿈치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했던 전상현도 실전 재개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야수조는 수비 훈련에 이어 타격 훈련을 하면서

타격감 유지에 신경 썼다. 윌리엄스 감독이 직접 배팅볼 투수로 나서 선수들의 타격 훈련을 돕는 등 첫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밝은 분위기에서 훈련이 시작됐지만 선수들에게는 '생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19일 훈련 뒤 20·21일 자체 홍백전을 치른다. 윌리엄스 감독은 홍백전 등을 통해서 진짜 무대를 위한 정예 멤버를 고르게 된다. 옥석가리기에 앞서 윌리엄스 감독은 긴 시선으로 선수단의 컨디션 조절에 우선 신경쓰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선수들은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 캠프가 연기되면서 조정이 필요하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가족들을 볼 시간이 있었고 순조롭게 시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수단 인원을 줄여가는 시점이 오겠지만 일단은 선수들이 몸 상태를 신경 쓰고 루틴을 준비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팬들이 야구를 기다리시는 만큼 우리

선수들과 팀도 빨리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경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기다리다 보면 시즌 개막에 맞춰 좋은 야구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새로운 리그에 도전하는 브룩스는 ‘가족의 힘’으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낸다. 코로나19 때문에 홀로 입국할 예정이었던 브룩스는 아내 그리고 아들, 딸과 함께 한국으로 왔다. 브룩스는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들을 겪었고 미국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가족과 함께 왔다”며 “지난해 11월에 챔피언스필드에 온 적이 있는데 경기장도 좋고, 날씨도 지난번보다 나은 것 같다. 등판할 때마다 이기고 싶다. 나가는 모든 경기에서 다 이기고 싶지만 이닝 수를 길게 가져갈수록 팀에 좋을 것 같다. 팀을 위해 많은 이닝을 던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유로도 코파도 내년으로 연기

###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1년 늦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공습에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 버금가는 축구 국가대항전인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가 결국 1년 연기됐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로2020을 1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6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유로2020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린다. 1960년 시작돼 4년마다 열리는 유로 대회가 4년 주기를 깨고 홀수 해에 열리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로2020은 대회 창설 6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국 한 곳이 아닌 유럽 12개국, 12개 도시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UEFA가 결국 백기를 들었고, 결국 60주년이 아닌 61주년에 치러지게 됐다. UEFA는 이탈리아에 상륙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자 유로2020의 연기 여부와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의 진행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이날 55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유럽 프로 구단들의 협의체인 유럽

클럽협회(ECA),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 유럽지부 대표자들도 참가했다. 알렉산데르 체페린 회장은 “팬과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올시즌을 안전하게 마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윤’이 아닌 ‘가치’가 이번 긴급회의의 대원칙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됐지만 폴뿌리 축구와 여자 축구, 그리고 55개 회원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로2020이 연기되면서 2020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역시 올해 여름에서 내년 여름으로 미뤄졌다.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하는 스타 플레이어 상당수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다. 유로2020 연기에 따른 유럽 클럽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두 대회가 보조를 맞춰 새 일정을 짜야 했고, UEFA와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이에 합의해 둔 상태였다. 한편,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유로파리그의 재개 여부와 재개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 나지 않았다. UEFA는 “챔피언스리그·유로파리그 문제를 다룰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 ‘테니스 캘린더’도 뒤죽박죽

### 프랑스오픈 개최 5월→9월로 6월 뒤편던 대회도 변경 가능성 WTA 투어와 기간 겹쳐 혼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개최 시기를 5월에서 9월로 옮기면서 2020 시즌 ‘테니스 캘린더’가 뒤죽박죽이 될 위기다.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할 예정이던 프랑스오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다. 해마다 1월 호주오픈을 시작으로 5~6월 프랑스오픈, 6~7월 뒤편던, 8~9월 US오픈으로 메이저 대회가 진행됐는데 올해는 프랑스오픈이 맨 뒤로 순서를 옮긴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올해 6월 말 개막 예정인 뒤편던 개최에 관해서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US오픈이 9월 12일에 끝나는 데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프랑스오픈이 시작되는 일정은 선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이동 거리와 시차 적응도 문제지만 코트 재질도 US오픈은 하드코트, 프랑스오픈은 클레이코트로 다르다. 특히 9월 20일부터 10월 초 사이에 예정된 기존



페더러

조코비치

나달

투어 대회들의 주최 측으로서도 프랑스오픈 개최 시기 변경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 대회가 열리는 시기에 투어 대회는 중단되기 때문이다. 해당 시기에 레이버컵이라는 유럽과 비유럽의 남자 테니스 대항전이 예정돼 있고, 개막 직전에는 데이비스컵 대회도 열리기로 되어 있다. 또 WTA 투어 역시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각종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KEB 하나은행 코리아오픈도 9월 21일 개막 예정이라 변경된 프랑스오픈 기간과 겹친다. 이진수 코리아오픈 토너먼트 디렉터는 “프랑스오픈을 9월에 열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투어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남자의 경우 US오픈이 12일에 끝나면 18, 19일에 데이비스컵이 진행되고, 20일에는 프랑스오픈을 시작하는 일정이다. 또 프랑스오픈 기간에는 레이버컵 외에도 러시아, 프랑스, 중국, 불가리아에서 투어 대회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